

중전기기 기술개발 민간기금조성 방침확정

— 한전에서 韓國電機工業振興會에 500억원 출연 —

- 상공자원부는 중전기기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『한국전력공사가 기업체로부터 상환받는 기술료 500억원 전액을 한국전기공업진흥회에 이관』하여 민간기금 형태의 기술개발자금을 조성하기로 확정하였다.
- 상공자원부가 이번에 기술개발자금을 민간기금 형태로 조성하기로 결정한 것은
 - ▶ 중전기기의 대수요처인 한전에서 영세규모의 중전기기업체에 기술개발비를 우선 지원함으로써 기업체의 연구의욕을 높이고, 기술개발 위험을 최소화하여 기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한편, 한전은 개발제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여 값싸고 우수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
 - ▶ UR 협상타결로 정부지원 연구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둘러싼 국가간의 논란을 피해나갈 수 있고
 - ▶ 제조업체의 기술개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전기공업진흥회가 기술개발과제물 선정, 관리 및 자금지원을 담당토록 하므로써, 생산자 중심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져 투자의 효율화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.
- 상공자원부는 이번에 조정되는 기술개발기금의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고 개발제품의 상품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

- ▶ 한국전기공업진흥회에 설치된 산·학·연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『기술개발심의 전문위원회』에서 수출산업화가 가능한 품목을 선정 집중 지원하는 한편,
 - ▶ 개발제품의 상품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
 - 개발제품을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규격(KS규격, 단체규격 등)을 조기에 확정토록 하고
 - 고성능 고효율제품 개발시 『인센티브』를 부여하여 개발의욕을 고취하며
 - ▶ 품질수준 및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전기기 표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.
- 이번 조치로 중전기기업계에 안정적인 기술개발비 지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, 업계의 연구개발 활성화 및 개발제품의 상품화를 촉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, 제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로 만성적인 무역적자 품목인 중전기기가 2000년대에는 무역흑자 품목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〈한국전기공업진흥회에 조성될 기금 규모〉

- 한전지원으로 기술개발이 완료후 『한전에 상환하는 기술료』
상환수준(지원액의 50-60% 수준)

	우수과제	보통과제
- 참여 연구원 인센티브 지급	20%	10%
- 기술개발사업 재투자	30%	30%
- 상환하는 규모(5년분할 상환)	50%	60%

- 상환방법 : 한전(기술연구원)상환 → 한국전기공업진흥회에 상환

- 기금규모(백만원)

'94	'95	'96	'97	'98	'99 이후	'계
69	1,659	5,281	7,510	8,473	27,008	50,000